

企劃特輯 시연칼럼

을사오적乙巳五賊 권중현權重顯의 삶과 숭모정신崇慕精神

시연施連 권오신
대종회 종보편집위원장, 칼럼니스트-경농 경農의 정미보丁未譜 권두언
卷頭言-

지난 호에 실린 죽농공(竹農公, 휘언
重奭)의 권두언(卷頭言)이 실무책
임자의 고종이었다면 경농(經農)이 지
은 서문은 정미보(丁未譜) 편찬(編纂)과
발간(發刊)에 쓴았던 10년 세월의 애절
함과 어려움들이 간절하게 담겼다.

〈우리 權氏는 세대가 오래되도록 면
면히 내려와 그 본손과 자손이 번성하게
퍼져서 끊임이 없이 연속되며 그 문벌이
두드러지기가 삼한(三韓)의 갑족(甲族,
가계가 훌륭한 집안, 甲班)으로 일컬어
지게 되었는데 그 복록과 혜택의 소치를
궁구하여 보면 오로지 태사공(太師公)
께서 덕을 쌓으신 말미암음인 것이다.

그런데 각 파들은 보첩(譜牒)이 있고
각 집안에는 가승(家乘, 한 집안의 기록,
족보 또는 가첩)이 있어 그 잊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의리가 찬연하고도 낭음이
있는데 무슨 일로 또 대동보(大同譜)를
거듭 편수하여 낸다는 것인가.

진실로 이것이야 말로 족친간의 우애
를 도타이하고 화목을 두텁게 하며 풍
교(風教, 가르침)를 일으키는 것이 이것
이 아니고서는 불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중략-

〈대동보는 무릇 49편이나 되는데 발
간하는 역사가 끝나자 나에게 그 변수
문(弁首, 머릿 말)을 쓰도록 시켰다. -중
략- 내가 가만히 기뻐하는 것은 더욱 멀
면서도 더욱 친해지는 동성 간의 대원
이 이로부터 이루어지고 뒤에 오는 사람
들이 또한 능히 이 마음을 체득하여 조
술(祖述, 선인의 을을 본받아서 서술하
여 밝힐)한다면 그 세도(世道, 세상을 옮
바르게 다스리는 도리,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유익하게 드는 것이
어찌 오로지 우리 권씨(權氏) 일문만의
일로 그칠 것이오. 이에 말하는 바이
다.〈영기언행록永嘉言行錄에서 발췌〉

밝히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들
어갔으나 문장에 군더기가 없고 흐름
이 매끄럽다. 위엄이 서리고 멋을 부린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빼어난 서문이었
다. 대동보 발행 목적을 적고 우리 성이
갑족(甲族)이 된 이유를 붙이고 족제族
弟 중석(重奭)공이 이끌지 않았으면
중도에 그만들 위기가 몇 차례나 닥쳤음을
적었다. 인쇄 등 발간 작업은 양한丙
漢 양식丙軾 두 족숙族叔의 힘이었음을
이 서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광무光武 11년[융희 1년 1907] 정미
丁未 4월 자현부資憲大夫 군부대신軍
部大臣 겸임兼任 표훈원(表勳院, 대한제
국의 훈장, 포상 등 상훈을 맡았던 관서)
의정관議政官 육군부장陸軍副將 훈일
等勳一等 중현重顯 -

-태사공太師公 신도비神道碑 및 실
기實記 저술著述-

안동(安東) 능동재사(陵洞齋舍)길 길
목에 위치한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신도비(神道碑)는 광무光武(1907년 辛
丑) 9월에 새로 세워진 비(碑)다.

1661년(顯宗 辛丑)에 세워진 신도비
神道碑가 4주갑(周甲, 240년)이 지나 비
신(碑身)이 갈라지고 음각(陰刻)된 글자
가 바람에 마멸되어 다시 세우자는 첫
의논이 고종 27년(1890)에 있었다. 그로
부터 몇 년 후 7자(2m10cm)가 넘는 거
석(巨石)을 능골까지 운반했으나 재정
이 바닥나 수갈(豎碣, 비를 세움)이 늦어
졌다.

1907년 9월에 들어서야 준공을 보게
되어 고유제를 올렸다.

구 신도비 명(銘)은 외손인 이조참의
이경휘(李慶徽)공이, 음기(陰記, 비석 뒷
면에 새긴 글)는 병조판서(兵曹判書) 김
좌명(金佐明)이 썼는데 글과 전서(篆書)
는 옛 체를 그대로 옮겼으나 마모로 글
씨(음각)를 알 아 볼 수 없어 새로이 수
갈(豎碣, 새로운 비를 세움)하고 비석 하
단에 고친 흔적이 있었던 세자(世次)를
바로 잡았다.

이 역시 경농 경農 선대가 주찬(主贊,
주인의 입장에서 도왔다)을 했다.

-태사공신도비개건기太師公神道碑
改建記-

무릇 물이 그 균원을 잃으면 물의 갈
길을 잃게 되고 나무가 그 균본을 잃으
면 나무의 도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오
직 생각대 우리 비조(鼻祖, 조상의 존
칭·명사) 태사공(太師公)을 물과 나무로
비교하면 서로 그 근원이니 어찌 잡시라
도 이를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성씨(姓氏)를 받아 권씨(權氏)로 한
것이 지금에 이르러 세대 수로는 30여
대를 지났고 역년(曆年)은 거의 일천



(一千)에 이르렀으며 자손의 운임(雲仍),
먼 후손을 일컫는 말은 도덕과 충효와
훈업(勳業)과 문장으로 세상에 크게 드
러난 이가 끊임없이 줄어나 와 그 수
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무릇 선조를 위
하는 도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그 지극함
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 묘우(廟宇, 태사공)로 말할 것 같으
면 위치(位次, 계급이나 차례) 문제를 가
지고 생변(爭辯)하여 밝힌 일이며 의절
(儀節)을 찬연하게 갖춘 점이며 환란 뒤
에 중건한 것이며 기울고 퇴락한 우려가
있으며 중수 한 것 등이 모두 윗대에서
해 내려온 일이다. -중략- 공(公)의 신
도비(神道碑)가 세월이 오래 지남에 마
멸되고 갈라져서 거의 읽을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경인년(1890) 봄부터 여려
종인들이 근심함을 보고 글을 짓고 재물
을 모으고 돌을 잘라서 산 아래에 운반
해 놓았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공역이 마쳐지지
않았는데 병신년(1896) 들어 재사(齋舍)
에 회복지재(回祿之災, 화재)가 일어나
네 차례의 주위와 더위를 지나 준공을
보게 되니 재물(財物)이 고갈되어서 비
가 늦어졌다.〈중략〉

여러 종현(宗賢)이 출력하고 출재한
것은 본디 당연한 일이겠으나 또한 그
사실을 감히 인몰(湮沒, 잊혀버리게 할
수 없어)되게 할 수 없으므로 그 개략을
들어 적는다.〈중략〉 아아, 전에 나의 11
대조 강정공(康定公, 휘 흘 철澈, 영의정
領議政 21세)과 10대조 종장공(忠莊公,
휘 흘 윤택, 도원수都元帥, 22세)께서 일
찍이 위토를 마련해 놓고 고장(故鄉)을
중수하는데 치력(致効)하였는데 이번에
김씨(金氏, 김태사의 후손)가 일으킨 물
의와 삼소로 변쟁(辨爭)한 일과 석공 역
사를 도모하여 준공한 것을 재형(필자)
이 전례에 실기(實居)하여 준행하였으
며 또 재운(運)과 재운(允)이 친 아우와
족종제족(族弟)이니 같은 파(派)에서 조
상과 후손의 세대에 선후로 뜻을 계술
(繼述, 조상의 뜻과 일을 이음)하고 형제
간 세 사람이 동시에 재물을 떨어 도왔
으니 이 또한 종인 일동이 함께 아름답
다고 친양해 주는 바라.

성씨(姓氏)를 받아 권씨(權氏)로 한
것이 지금에 이르러 세대 수로는 30여
대를 지났고 역년(曆年)은 거의 일천



어찌 영광스럽지 아니하리오. 광무光
武 10년(1907, 신축辛丑) 32세손세자
형在衡 쓰다.

융희(隆熙,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
자 대한제국의 2대 황제, 재위기간
1907~10) 3년(1909)에 발간된 '능동실
기(陵洞實記)'는 고려(高麗) 초기 왕건(王
建)을 도왔던 고장 병산전투 중심으로
남겨졌던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의
행장이 전기형식으로 집필됨으로써 고
려 개국을 도운 태사공의 확고한 신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특히 고려 개국과 얹힌 시조 태사공의
행장, 고려 개국에 힘을 보태었던 시조
의 정신 등 지난 역사는 물론 안동 태사
묘(廟)와 능동재사(陵洞齋舍),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의 사적이 집대성된
최초의 보감(寶鑑)이다.

그는 무엇보다 위선(爲先) 정신이 커
서 태사공(太師公)의 행장(太師公實記)과
국재실기(國齋實記)를 저술하는 데 상당
한 시간을 썼다. 이 자료들은 지난 천년
의 최초 역사서이자 후대까지 전해질 보
서(寶書)이자 득성 일천년 역사를 정리
해서 미래 천년에도 후손들은 편하게 시
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의 위업을 알고
기릴 수 있게 됐다.

1901년 안동김씨(安東金氏)들의 주장
으로 안동 삼태사(三太師廟)의 현작
순서를 바꾸려 할 때에도 당시 대한제국
(大韓帝國) 군부대신(軍部大臣)이었던
권중현(權重顯)이 나서 권력 김금 장(張)
태사 순위로 고착시키고 이 생변(爭辯)
을 종식시켰다. 권력 김금 장(張) 태사
의 순서는 근대시대로 바뀌기까지 유
지되었으며 지금도 주변에 시조 태사공
이시다.

저술 시기는 고종 38년(1901) 태사묘
위차(位次)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안동
에 내려왔을 때다. 능동재사 신도비(神
道碑)를 새로 세우고 개건기(改建記) 도
이 때였다.

〈자료출처: 능동실기(陵洞實記), 안동권씨
대동보(安東權氏大同譜), 영기언행록(永嘉言
行錄),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학산실기(鶴
山實記), 위기백과〉

〈다음 호에도 계속 됩니다.〉

운곡서원의 아름다운 돌담장



시조 태사공과 충민공(忠愍公), 귀봉
공(龜峯公)을 배향하는 경주 운곡서원에
전통방식으로 쌓은 돌담장이 생겼다.

운곡서원은 경주시의 지원을 얻어 주
차장에서 경덕사와 서원 강당으로 오르
는 원편 언덕 150m에 자연석 돌담장을
전통방식으로 쌓았다. 서원은 이 공사를
홍태표 문화재 석공기능장(314호)에게
맡겨 한 달 만인 12월 중순 준공했다.

너비 2m의 계단 역시 담장과 어울리게
자연석 돌을 깔았다. 유연정(경북도 문화
재)과 수령 250년의 은행나무, 서원과 어
울진 아름다운 명소가 되면서 겨울 철
평일에도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안동권씨 경주종친회 운영위원회



독립군 활동비를 매년 10월에서 20원씩(현재
화폐가치 200만원 추정)을 지원한 경주 두동
권재운(權在運) 선대(종주원 의원, 작고 1938
년) 등 두류 국당 등급 문종의 지원액과 이름
을 적은 서류더미가 최근 최부자 기념사업회
에서 찾아낸 사실을 밝히고 명단과 지원액이
파악되면 종보에 특집으로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 정기총회를 겸한 경
주종친회 화수회는 내년 5월 10일 운곡서원
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가나기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세무법 인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준(權赫潤)(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준, 정부해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률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